

# 올 상반기 주요 기업 실적

## 高환율 ... 車·조선 수출입종 '웃고'

## 高물가 ... 유통업·건설 부문 '울고'

올 상반기 주요 기업들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효과 등에 힘입어 대체로 양호한 성적표를 내놨다. 그러나 경기둔화 양상이 나타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수부진 등을 타개할 카드가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각 업계의 하반기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 경기둔화 가시화면 하반기 전망 비관적

◇주요 업종 '기록 행진' = 상반기에는 자동차·철강·조선·전자 등 주요 업종들이 원가상승이라는 '도전'을 받았지만 환율 메리트가 통하는 해외 시장 등을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각종 호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인 18조1천400억원에 달했고 LG전자는 2분기 매출액 7조2천335억원, 영업이익의 6천348억원(본사 기준)으로 모두 분기별 사상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차는 환율상승 덕분에 해외판매가 늘면서 2분기 매출이 9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고 작년까지 2년째 적자를 기록했던 기아차도 신차 출시효과를 보면서 올해 1~6월 2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포스코는 제품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2분기에 매출 7조5천억원, 영업이익 1조9천억원, 순이익 1조4천910억원을 달성해 최대 기록을 세웠다.

조선업계의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상반기에 120척의 선박을 수주해 작년 상반기보다 실적 27% 상승했으며 '사상 최대' 기록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해의 플랜트 수요호황을 누린 대형 건설업체들도 실적 잔치를 벌였다. 현대건설은 반기실적 사상 최고치인 영업이익의 2천883억원을 기록했고 GS건설도 영업이익의 2천447억원, 매출 2조5천864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해운업계는 고유가 압박을 운임강세로 극복한 케이스타. 대표적 벌크선사인 대한해운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83% 증가한 1천610억원을 기록했고 매출도 72% 증가해 8천270억원에 달했다.

백화점업계도 생활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상위 계층의 소비생활이 활발해져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5.7% 증가한 1천359억원이었다.

◇경기둔화 타격 가시화 = 그러나 이번 양호한 실적의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내외적으로 가속화하는 경기둔화의 영향이 곳곳에 묻어나고 실적부진이라는 '쓴잔'을 마신 업체들도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한 삼성전자의 경우가 일례가 된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2%나 떨어졌다. 선진국 수요침체와 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소비심리 위축은 대형마트들의 매출 증가율을 깎아내렸다. 매출증가율이 3~6%에 그쳐 예년 평균치(9~10%)에 크게 못미쳤다. 통상업계도 상반기에 외형적 성장을 이어갔지만 마케팅 비용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해의플랜트 사업이 없는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고스란히 매출 및 영업이익의 악화로 반영되고 있다.

◇하반기 전망 엇갈리 = 올 하반기 각 기업별 경영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 등장마저 점쳐지는 침체기를 극복할만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성장을 이어갈 대안을 갖췄는지 등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포스코는 하반기에도 국제 철강가격의 강보합세로 인한 매출 확대가 지속돼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목표도 연초의 2조9천억원, 4조8천억원에서 각각 3조1천억, 5조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유가 효과제품인 '중소형차 판매' 카드를 쥐고 있는 현대차는 내수 판매목표를 4만대 줄였지만 수출을 8만대 늘려 잡아 총 판매목표를 18만대로 올렸다.



“건강디저트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가 27일 서울 한 강시민공원 야외도지구 야외수영장에서 여름철 건강디저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주방용품 ‘블렌더’ 출시를 기념해 홍보행사를 열고 있다.

## 코스닥 종목 10개 중 1개 꼴 수익률 '반토막'

개인투자자 98개종목서 50%원금손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10개 주식 가운데 1개 이상 꼴로 원금손실률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22.86% 감소했으며 수익률 -50% 이하인 주식은 전체 종목 930개 중에서 98개로 10.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대상 종목에는 감자에 따른 주가 산출 불가능 종목과 신규상장 종목, 관리 및 거래정지 종목은 제외했다. 영화 및 비디오투 제작업체인 글로벌소프트는 연초 이후 주가 하락률이 84.21%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노비츠와 사라콤, 한국하이네트, 디보스 등 9개 종목은 -82.17~72.56%의 수익률로 '불량주식 톱10'에 드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거래가 빈번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해 평균 하락률 15.77%를 기록한 가운데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종목은 전체 비교대상 종목 653개 중에서 18개로 2.76%에 그쳤다.

유가증권시장의 하락률 상위종목을 보면 성신유브렉스가 -75%로 1위였고 그 다음은 서울저축은행(-65.24%), 유성티에스아이(-60.70%), 온미디어(-58.51%), 금호산업(-58.39%) 등의 순이었다.

## 국민들 절반 가량 '반기업 정서'

### 기업들 투자 의욕 안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기업 정서마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투자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환)과 함께 전국 성인남녀 2천422명을 대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업호감도 조사'를 한 결과 기업호감지수(CFI)가 100점 만점에 45.6점으로 보통 수준인 50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밝혔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 기업 활동, 기업인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다.

2003년 말 첫 조사에서 38.2점을 기록한 기업호감지수는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2006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50점을 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상반기 48.1점, 하반기 46.6점,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는 1.0점 하락한 45.6점으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 국제 휘발유·원유 가격차 1달러 미만

### 기름값 내릴까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과 원유가격의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좁혀지면서 원유가격 하락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20.99달러,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육탄가 92 기종) 현물가격은 배럴당 121.81달러로 가격차이는 배럴당 0.82달러에 불과했다.

두바이유와 휘발유의 현물가격 차이는 지난달 4일 배럴당 15.62달러까지 벌어졌으나 한달 뒤인 지난 4일에는 6.6달러로 좁혀졌고 17일에는 1.96달러로 1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최근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휘발유는 원유를 정제한 제품으로 제조비용을 감안하면 제품이 원료보다 가격이 높아야 하지만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으로 좁혀진 것은 유가가 하락세로 떨어지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고유가와 경기둔화로 휘발유 수요가 크게 줄어 들면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은행, 하반기 채용 늘린다

국민 300명·하나 100명·외환 100명 등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직원 채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수년간 매년 1조~2조원의 많은 순이익을 낸 은행들이 고용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채용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하반기에 30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230여명보다 늘어난 숫자다. 하나은행은 8월 중순 가계금융 직군 200명에 이어 9월에는 종합직 인력을 100명 선발한다. 최근 HSBC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외환은행도 9월 공고를 내고 100명 이내에서 신입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올 하반기에 300명을 뽑고 신한은행과 농협도 조만간 공채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외국계 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27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97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60.9%가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매각, 대기업·外資 배제

대우조선해양 등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 경제력 집중·투기자본 막기로

경제력 집중이나 투기자본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국가안보 및 기간 산업에 속한 공기업의 매각시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이나 철도공사·도로공사 등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이 이런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외국자본 지배 등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등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 참여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동등 대우의 원칙을 적용, 매수자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별로 이러한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공기업이 매각돼도 기업경영권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전기·가스·수도는 불

론 철도공사·도로공사 등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이 대거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기업·외국자본 제한원칙은 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 중인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중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 공기업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고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 군수물자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자본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등은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역시 매각시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 메이저 제지업체 '가격담합' 시정조치

정부가 국내 5개 메이저 제지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에 나섰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내 9개 제지업체 가운데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5개 메이저사

들이 오는 8월1일부터 종이 공급가격을 15%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이달 중순 각 수요처에 보낸 것을 확인하고 조사중이다. 5개사는 한솔제지와 EN Paper, 무림제지, 남한제지, 계성제지 등이다.

### 로도복권 (제29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4 12 16 18 38	8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2,969,875
3	5개 숫자 일치	1,616,207
4	4개 숫자 일치	59,131
5	3개 숫자 일치	5,000

### 팝콘복권 (제118회)

등 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505566
2	1억	5조 670607
3	1천만	2조 413526
4	1백만	각조 08573
5	50만	각조 7145
		각조 67
6	2천	각조 61
		각조 06
		각조 9
7	1천	각조 8
		각조 4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비오신코리아	제품입출고 및 재고관리, 사무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222-1158
해원에스티	해원에스티 임원직 경력사원	대졸/경력12년	회사내규	07/29	062-958-7033
나노텍	제품개발 및 기구설계/인사총무 및 경리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602-7926
히나로아시아	월드자이너 신입 및 경력직	1600~1800	07/31	070-7667-8070	
한국인포데이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1	062-360-0503
S&P환경기술	총무부 경력직 남녀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01	011-624-0648
대창E&T	SK텔레콤 매장대리점 매장관리/영업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1	062-383-6831
성정건설	전문건설 철콘업체로 현장시공관리 기술자	초대졸/경력3년	2400~2600	08/03	062-515-3579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8/04	062-369-0790
고은종합건설	경리회계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2200~2400	08/04	062-529-2045
티미힐피거세정점	의류 판매사원 경력직	고졸/경력1년	1200~1400	08/04	062-384-6165
살롬산업	각부서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7	062-652-2701
이트닉과의원	데스크, 코디네이터, 치위생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7	062-651-287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